

# “나 죽고도 남을 기타 만들 겁니다”

‘기타 匠人’ 엄태홍 ▶B1면에서 계속

몇 달 뒤 그는 안면이 있던 독일의 기타 제작자 가즈오 사토(64)에게 전화를 했다. 가즈오 사토는 17세 때 영국의 장인에게 날아가 기타 제작을 배운 한국계 일본인이다. 독일에 자리를 잡고 기타를 만들었는데 서독 정부가 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내놓자 한 살 터울로 4남매를 내리 낳고서 월 500마르크의 출산장려금을 몽땅 약기묵 사는 데 써버린, 기타에 미친 사람이다.

아내의 통역으로 그가 부탁했다. “지금 방식이 아닌, 옛날 방식을 알고 싶다. 당신이 배운 그대로.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가즈오가 그를 독일로 불렀다.

1990년 10월 가즈오는 작업실에서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기타 설계 도면이다. 그리고 먼지 가득 쌓인 옛 도구상자를 열었다. 엄태홍은 석 달 동안 작업실에 살며 기타를 만들었다. 그는 한국 어만 알았고 가즈오는 한국어를 몰랐다. 눈빛과 전문용어로 석 달간 대화했다. 그리고 가즈오의 ‘하산(下山) 허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가즈오 소개로 목재상에 가서 기타 재목의 명품 독일 스푸루스 목판도 대량 구입했다.

### ■명기(名器)를 만든다

“제가 만든 기타를 들고 연주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연주를 해보더니 이롭니다. ‘이거 사토 거랑 똑같다’라고요.” 기분이 좀 그랬다. 한 달 뒤에 또 하나를 만들어 선보였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것도 사토 기타다.” “나 엄태홍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어디 사토 냄새나 피우고 거들먹거리는 가짜.”

춘몽(春夢)에서 깨어난 듯 엄태홍은 홀연히 깨우쳤다. “제작 노트도 기타도 다 치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미친 듯이...”

대량생산은 집어치웠다. 자존심 문제였다. 엄태홍표 명기 만들기가 지상 목표가 됐다. 전기톱에 손가락 반 마디가 날아가기도 했고 전기 대패에 아예 손가락이 몽땅 날아갈 뻔도 했다.

독일 명장의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 만든 기타에 줄 끼우기가 두려울 정도로” 창피했다. 2000년에는 단 한 대도 만들지 못했다. 작업실에서 연주할 때는 그럴 뻔했는데 야외 연주장에 가니 소리가 ‘알더라’고 했다. 그러다 “한 몇 년 가니까 내가 말아도 사토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외면당하고 독일까지 배워온 기술이 사라지고 엄태홍 식 기타가 탄생했다.

“2002년 초에 만든 기타에서 드디어 소리가 팡팡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어



43년 동안 명품 기타 만들기에 인생을 바친 엄태홍.

요. 득음(得音) 같다고 할까... 분명히 그 전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제서야 가즈오의 말이 기억났다. “기타 장인의 기술은 뱃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배울 수도 가르쳐줄 수도 없다.” 엄태홍 기타는 한 대에 500만원이다. “죽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대씩 만들 것”이라고 했다.

### ■장인(匠人) 3대 - 엄태홍 엄태창 엄용식

엄태홍의 동생 태창(54)도 기타를 만든다. ‘엄태창 기타’도 동호인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다. 엄태홍의 조카 용식(37)도 작은아버지 엄태창의 작업실에서 도제 수업을 받고 있다.

엄태창은 명품과 함께 비교적 저렴한 악기도 만든다. 큰형의 아들인 용식은 철저한 수작업인 엄태홍 작업실 대신 엄태창의 공장을 택했다. 엄태홍이 말했다. “우리 모두 택한 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가업을 잇지요. 저는 저는... 나 죽고도 남을 악기 만들 겁니다. 엄태홍 기타.” 지난 3일 그는 43년 동안 축사한 대가로 끊어진 아계 인대 수술을 받았다. 박종인 기자 [seno@chosun.com](mailto:seno@chosun.com)

## 설악산 기슭으로 간 스승

### Why? 제작노트

교육부장관을 두 차례 지낸 안병영(安秉永) 전 연세대 교수를 며칠 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대학 은사입니다. 혈액이 좋아졌다고 인사를 건네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퇴임하고 강원도 속초의 작은 아파트로 아내와 함께 이사를 했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설악산을 앞뜰처럼 매일 산책하고 푸른 동해도 보고 호수기도 거닐고...” 안 전 교수는 “장관 그 만돌 때 88kg이던 체중이 79kg으로 줄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연세대 인근 연희동의 단독 주택에 사셨지요. ▶그분 표정이 밝은 것은 살이 빠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얼마 뒤면 강원도 고성에 자그마한 집이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완공되면 꼭 한번 놀러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서울에서 속초로, 다시 고성으로 가면 이것저것 불편하지 않으냐고 묻자 안 전 교수는 “서울에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몰아서 온다”고 했습니다. 승용차도 몰지 않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달 말이면 12년 무주택(無住宅) 생활을 면합니다. 1990년대 중반 사놓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는 것이지요. 그간 전세 살며 이사 다녔던 일들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그 집이 저를 괴롭힙니다. 추가분담금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부동산업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입니다. 집에 입주할 거

냐, 전세 놓을 거냐 월세 놓을 거냐, 얼마에 놓을 거냐... 연초에는 하루 1~2통 오던 전화가 지금은 10통이 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삿집센터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사할 거냐 말 거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재건축조합에서 개인정보를 마구 유통시켰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너무 짜증나 법적으로 대응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가해자는 발 뺏고 자고 피해를 본 사람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아니까요. 같은 집도 어떤 이에게는 스위트 홈으로,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의 원천이 되더군요. ▶국민에게 짐은 뭘까요. 국가(國家)겠지요. 그 집에서 소동이 일어난 지 서 달째입니다. 5월 초 시작된 일이 7월에 들어서도 그칠 기미가 없으니까요. 기온은 오르고 습도도 더 높아질 텐데 큰일이군요. 그래서 이번 주 why? 지면 구성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대(代)를 이어 기타를 만들어온 장인(匠人) 엄태홍씨, 중학교 2학년 때 다리가 잘려나갔는데도 굴하지 않고 복싱선수가 됐고 기술을 배우는 황원준씨, 영어(英語)로 일가를 이룬 개그맨 김영철씨를 취재했습니다. ▶독자들에게서 벌써 눈치를 쬐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why?의 테마는 역경(逆境)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유 없는 증오와 까닭 모를 불만이 모두를 감싸고 힘겹게 하는 요즘입니다. 주말에 why?를 즐기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국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갑식 기획취재부장 [gsmoon@chosun.com](mailto:gsmoon@chosun.com)

#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싶어요”

## 문갑식의 하드보일드

## 국내에 한명뿐인 외다리 복서 황원준

경기도 부천대 한길체육관 특설 링에서 5월 9일 밴텀급 국제전이 열렸다. 주인공 여자 복서들이 등장하기에 앞서 국내에 한 명뿐인 외다리 복서 황원준(23)이 조연(助演)으로 링에 올랐다. 신장 180cm에 몸무게 55kg인 그는 상대와 치고받다 코피가 터지고 말았다.

의족(義足)에 의지한 청년은 4라운드 12분 동안을 맞고 때리며 40만원을 벌었다. 오른쪽 무릎 아래가 잘려나간 그는 왜 복서가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취재하다 황원준이 작년 4월 21일 데뷔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였다. 1년 전 그는 중국 선수를 이겼다.

황원준을 만나기 위해 서울 한강로 풍산체육관을 찾았다. 용산은 개발 붐이 일 곳이다. 평당 땅값이 3000, 4000만원을 호가한다. 그 근처라기 땅 한가운데 시장이 있다. 60년대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시장 북판 낡은 건물의 침침한 2층 복도를 지나 자 체육관 간판이 보였다.

기자는 그에게 ‘왜 경기를 1년 만에 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혹시 재미로, 취미 삼아 복싱하는 것이냐는 뜻이 반쯤 담긴 질문이었다. 황원준은 “맨살과 의족이 맞닿은 부분에 딱이 많이 나면 염증이 생긴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면 잘라낸 부위가 굵는다. 염증 치료에는 몇 달이 걸린다.

황원준의 다리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사라졌다. 그는 전남 여수 구봉중에 다니고 있었다. “8월 16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누비라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중앙선에서 유턴하다 운전 미숙으로 인도(人道)를 덮쳤어요.”

### 젓먹이시절 부모님 헤어지고

### 중2때 교통사고로 다리 잃어



### “자전거 정비같은 기술 배워

### 앞으로의 인생 꾸려나갈 것”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빙그레 웃었다. “저는 멀쩡했는데 행인들이 더 놀랐지요. 구급차 부를 생각도, 신고할 생각도 못 하고 멍하니 있던 수건을 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수건으로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묶었습니다.”

황원준은 다리를 살려보려 안간힘을 썼다. “10년 넘게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잘라야 했습니다. 절단 부위는 왼쪽 넓적다리 살을 때 이식했습니다.” 서울 경희대 병원에서 이 중학생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복서 황원준을 이해하려면 복잡한 그의 가족사(家族史)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젓먹이일 때 헤어졌다. 그 젓먹이를 맡아 키운 게 그의 친할아버지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가난은 자연스럽게 황원준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20년을 갓 넘은 황원준의 삶에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여수 백초초등학교 4학년 때다. 당시 그는 축구부원으로 재능을 꽃피웠다. 그렇지만 축구선수가 돼 그라운드를 누비겠다는 꿈은 다리가 사라지기 전에 끝났다. 구봉중 축구부에 매달 내야 할 회비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라졌던 부모는 사고 후 나타나 보상을 가져갔다. 황원준은 보상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다리를 잃고 졸지에 장애인 4급이 된 그는 고교 졸업 후 2005년 용산의 의족(義足)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처음에는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의족 회사에 들어갔지만 1년쯤 일하다 보니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장애인을 위한다기보다 영리(營利)로 운영되는 현실을 본 것이다.

의족회사를 그만두기에 앞서 그는 맞은편 시장 안에 있는 풍산체육관을 한시점찍었다. 핑가를 하지 않았던 미칠 것 같았던 청년에게 복싱은 유일한 활로(活路)처럼 보였다. 몇 달을 고민하던 끝에 황원준은 풍산체육관 마방렬 관장(54)을 찾았다.

“체육관을 찾은 첫날 관장님에게 복싱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다 잔뜩 혼이 났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관장이 제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대요. 제 의족이 왼쪽 다리라 길이가 맞지 않아 걸을 때마다 휘청휘청했거든요.”

월 회비 9만원을 내고 그는 풍산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잠도 잤다. 관장은 그런 그에게 아침과 저녁밥을 사줬다. 들추먹 김태식이 세계챔피언이 될 때 코치를 했고 조인주를 세계챔피언으로 키워낸 마관장은 “별수록 안돼 보여 밥 몇 끼 사 먹었을 뿐”이라고 했다. 원래 복서의 펀치력은 굳건한 다리와 허리에서 나



외다리 복서 황원준이 샌드백을 두드리고 있다. 그의 체급은 슈퍼밴텀급이지만 샌드백을 칠 때마다 팡팡 소리가 난다.

온다. 복싱 해설가들이 경기 중계를 하며 그로기 상태에 몰린 복서를 보며 “다리가 꼬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하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쪽 다리 없는 그를 진짜 복서라 할 수 있을까.

황원준은 “다리가 없으니 꼬일 것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복싱을 합니다”라고 했다. 졸업기도 정상인과 다름 바 없다. 후리후리한 키를 깎마른 체구가 지탱하고 있지만 균형도 잘 잡혀있다. “혹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복싱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번 묻자 마 관장이 끼어들었다.

“하루 12km씩 도로에서 로드워크 하는 것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100m달리기를 해도 15초 정도의 기록이 나와요. 다리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는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키가 커서 아웃복싱을 하기에는 제격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원준이가 세계챔피언은 몰라도 동양챔피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6회전 두 번을 모두 이기면 8회전 계임을 건너뛰고 10회전을 뛸 수 있으며 한국 챔피언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되고 한국챔피언 다음에 동양챔피언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복서의 삶은 짧다. 잘나갈 때는 전화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링에서 내려오는 늙은 복서를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황원준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금도 인터넷 전화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전기 정비 같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살 수 있지요.”

각박한 세상이다. 뚜렷한 이유 없는 증오가 거리를 지배하고 알 수 없는 한(恨)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세상이다. 만일 이런 게 공식이라면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난에게 사랑받고 몸마저 정상이 아닌 황원준은 뒷골목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누가 건드리기 전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아요.

“기가 차지만 지금은 이해하려 합니다.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자포자기하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하하, 제가 그럴 생각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해요.”

체육관을 빠져나오자 돼지 족발과 순대가 섞인 시장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겼다. 키와 맞닿을 높이로 드리워진 천막 위로 용산의 마천루(摩天樓)가 보였다. 빛은 저쪽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숨 쉰다.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으면 독(毒)이, 썩소가 먹으면 유유가 된다는 말이 떠올랐다.

[gsmoon@chosun.com](mailto:gsmoon@chosun.com)